

스웨덴 수도 '정치적 주(週)' 활동에서 파룬궁이 관심받다

[밍후이왕]2017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스웨덴 비정부기구와 스톡홀름 시정부가 연합하여 거행한 '정치적 주' (Politik Vecka) 활동에서 파룬궁단체는 관심을 받았다.

9일 간의 활동에서 스웨덴 총리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및 모든 각 당 대표, 문화부, 공업부장관이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받았고 파룬궁수련생이 직접 만든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은 연꽃을 받았다. 많은 스웨덴 각 당파 회원이 진지하게 수련생이 말한 진상을 들었다. 어떤 사람은 부스 앞에 와 수련생과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었다. 그들 중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 파룬궁 진상을 이미 안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자발적으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 강제 장기적출을 반대하는 서명 용지에 서명했다.

스웨덴 환경당 당원 제이콥 덴커(Jacob Dencker)는 이번에 특별히 파룬궁수련생 부스 앞에 와 진지하게 사과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들(파룬궁)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17년 전 일을 말했다. 그가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일할 때 당시 한 파룬궁수련생이 그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를 주었는데 그는 아주 좋아하지 않았고 그 수련생을 불친절하게 대했는데 지금 이 일 때문에 아주 후회한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연속 사과했다. "저는 지금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서명하는 방식으로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최악 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주 기뻐하며 말했다. "제 서명은 우리 전체 당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수도 '정치적 주'활동의 목적은 정치가와 이



▲ 파룬궁수련생이 '정치적 주' 활동에 참가한 스웨덴 모든 당파 대표, 정부 관리 및 지역 부서, 기구 각계 인사에게 직접 파룬궁이 중국에서 박해 받는 진상을 알리다.

민 지역 사이 거리를 가까이 하여 이민 지역에 나타난 많은 문제를 정치 의사일정에 넣기 위한 것이다.

전세계홍보그룹집단(The Global Village) 회장 아메드 아브디라함(Ahmed Abdirahman)은 이번 활동의 발기인이다. 스웨덴 모든 당파 대표, 내무부, 문화부, 노동부, 기업부 장관 및 일부 당파 부대표 및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다. 활동에 의회, 주(州)회, 각 지역단체, 싱크 탱크를 초청했으며 각 조직, 협회, 회사, 정부기관 등 50여 개 전시 부스가 있었고 스웨덴 주류 언론에서 생방송을 했다. ◇



사진뉴스: 미국 미시간주 파룬따파학회는 "베스트특별상"을 수여받다

[밍후이왕]2017년 6월 19일 저녁, 미국 미시간주 세인트 클레어 해변(St. Clair Shores) 시의회 청에서 제 65차 전물장병기념일 대행진 베스트방진 수상 의식을 거행했다, 미국 미시간주 파룬따파학회는 "베스트특별상" (Best Special Entry)을 받는 영광을 가졌다.



파룬궁서적 출판 금지령이 해제되다

리를 더욱 강화할 데 관한 통지.

위의 두 문건은 중공의 사람을 박해하는 역대 운동에서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시비를 전도한 최악적인 문건이다. 파룬궁서적은 불법적인 것이 없으며 모두 사람을 선하도록 가르친다. 파룬궁서적은 이미 근 40종 언어로 번역됐으며, 세계각지에서 출간 발행되었는데 오직 도덕이 부패해진 중공 장쩌민집단의 집정아래에서만 사람더러 선을 향하게 가르치는 서적이 불법으로 금지됐다. 현재 이 2개 불법문건이 폐지된 것은 중공자신의 규정으로 봐도 국민이 파룬궁서적을 지니고, 읽고, 전

파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국민이 파룬궁서적을 지니고, 읽고, 전파하는 것을 이유로 박해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최후에 법률의 추궁을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최근에야 파룬궁서적 출판금지령 폐지 문건을 볼 수 있게 되었는가? 평론에 따르면 중공의 현직 당국자는 사람들에게 파룬궁수련은 합리하고 합법적이라는 신호를 부단히 보내고 있다. 바로 중공내부에서도 파룬궁에 대한 장쩌민 무리의 박해가 인심을 잃었으며 이미 말로에 이르렀고, 청산 당할 종말에 직면했음을 설명한다. ◇

[밍후이왕] 2011년 3월 1일, 중국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柳斌杰)는 신문출판본부 령 제 50 호를 발표 하여 “신문 출판총서는 ‘다섯번째 규범성 문건’을 폐지한다.”고 공포했다. 이 결정의 제 99 항목과 제 100 항목에서 아래 1999 년에 발포한 2개 문건을 폐지한다고 명확히 결정했다. (1) 파룬궁출판물처리 의견에 관련한 재확인 통지. (2) 파룬궁 종류의 불법 출판물 인쇄를 금지하고 출판물 인쇄관

경찰

“당신을 설득하려 했는데 지금은 입도 못 벌리겠어요.”

[밍후이왕] 나는 텐진(天津) 지역 대법제자 장수친(張淑芹)이다. 우리 지역 사악이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는 심각해 경찰이 2, 3일에 한 번씩 찾아온다. 경찰은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왔지만 나는 집에 있지 않았다. 두 차례는 그들을 만났다.

한번은 내가 마당에서 일할 때 한 경찰이 왔다. 나는 그를 집안으로 들였다. 그때 속으로 태연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나에게 파룬궁을 아직 수련하냐고 물었다. 나는 수련한다고 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당신에게 마음속 말을 할게요. 저는 99년 ‘7.20’ 전에 수련을 시작했고 박해를 하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왜 수련하게 됐을까요? 당신 앉아서 좀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연공은 손자를 위한 거예요. 손자를 보았나요? (손자는 내 앞에 있었음)” 그는 올해 3살이다. 2016년 9월에 눈이 아프다

고 해 현지에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낫지 않았다. 며칠 후 손자의 눈이 부어 올랐다. 아들은 텐진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다. 의사는 검사 후 아이가 녹내장에 걸려 이미 실명이라고 말했다. 아들은 듣고 멍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의사에게 치료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의사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아도 수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눈이 터질 수 있다고 했다. 베이징에 가서 전문의를 찾아보라고 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들과 며느리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듣고 울었고 남편도 울었다. 베이징에 가자. 베이징에만 4 번이나 갔고 가장 유명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아이에게 수술을 해줬다. 전문의는 말했다. “눈이 이미 실명했고 수술은 눈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며, 지금 아이가 어리니 17 살 때 눈을 빼고 가짜 눈을 넣어줘야 합니다. 수술해도 눈이 붓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아마 한 달, 일 년

후 혹시 더 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를 수술한 후 집으로 데려왔다. 보름 후 아이 눈은 또 부었고 아파서 울기만 했다. 온 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나와 남편도 침대에 올라가 울고 아들도 바닥에 앉아 울고 며느리도 안달이 나 아이의 눈을 4 시간이나 맞시지해 줬고 손도 떼지 못했다. 이때 남편이 말했다. “병원에 가서 내 눈알을 빼서 아이에게 주자. 내 나이에 눈이 없어도 괜찮아.” 아들은 “눈을 바꾸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다시 수술을 해요? 아이가 견딜 수 있겠어요? 이전에 수술을 할 때 마취가 풀린 후 아이는 아파할 때 세 사람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어른 셋이 한 시간을 붙잡아서 비로소 10여 일을 버텼어요.”

수술하면 모두 마비되고 설령 다시 한 번 해도 10여 일이면 또 붓고 아이도 어린데 마취제를 쓰니 견딜 수 없었다. 한번 수술하면 3만 위안이 드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는데 10 여 일에 한번 수술하면, 지금 아이 3살밖에 되지 않아 17 살 때 눈을 바꿀 수 있다. 그 사이에 얼마만한 10 여 일이 있는가? 온 가족은 빈털터리가 되도 아이의 실명한 눈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온 가족은 울며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파룬궁을 수련해요. 기적은 대법에서 나타나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자.”

이렇게 온 가족은 매일 ‘파룬따파 하오’를 염했다. 나는 다시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고 9살 난 손녀도 매일 염하고 손자 스스로도 염했다. 며칠 염하고 부었던 눈이 한 바퀴 작아졌다. 온 가족은 더욱 신심이 생겼다. 매일 염하고 20일 염했을 때 뜻밖의 기적이 나타났다. 아이는 시력을 되찾게 되고 물건을 볼 수 있었다. 온 가족은 기뻐으며 이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때 나는 전 세계에 ‘파룬따파 하오’를 외치고 싶었다.

말하고 경찰에게 물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수련하지 말라는 건가요? 의학이 도달할 수 있나요?” 경찰은 말했다. “좋으면 집에서 수련하세요.” 그런 후 돌아갔다. 나는 말했다. “가지 마세요. 당신에게 알려줄게요. 집에 어른이든 아이든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파룬따파 하오’를 염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평안을 되찾을 수 있어요. 또 대법 제자를 보호해 주세요.” 경찰은 대답하고 갔다.

두 번째는 올해 5 월이다. 내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이 왔다. 이번에 남자 3 명과 여자 한 명이였다. 이웃에서 들었는데 전에 그들은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내가 집에 없었다. 들어온 후 전에 온 경찰이 말했다. “아주머니, 저 또 왔어요.” 나는 말했다. “왜 자꾸 저를 보러 와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는 말했다. “아주머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들어가 좀 앉아도 돼요?” 나는 말했다. “집

안에 들어가요.”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속으로 생각했다. ‘다른 세 명에게 우리 집의 이야기를 알려줘야겠다.’ 나는 말했다. “당신들 이후에 나를 찾으러 오지 마세요. 이것은 제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는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상사에게 보고하지 못해요.” 나는 말했다. “그럼 잘 왔네요. 우리 집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전에 3 명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왜 다시 파룬궁을 수련했는지 말해 볼게요.” 나는 아이의 눈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다시 한 번 말하고 그들에게 9 월에 사부님께서 아이에게 한 쌍의 밝은 눈을 주셨고 올해 5 월에 위대한 사부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구하셨다고 말했다.

5 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식당차를 끌고 길거리 먹거리를 팔러 갔다. 아침 4 시에 출발했다. 마을 남쪽에 큰 도로가 있는데 아들은 크고 무거운 식당차를 몰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로를 지나갔다. 그때 녹색등이라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건넜다. 이때 동쪽에서 화물차가 서쪽으로 달려왔다. 생각밖에 운전자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반대로 속도를 내며 아들 쪽으로 달려왔다. 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식당차는 광광 두 번 부딪쳤다. 차와 사람이 모두 날아가 분리대에 떨어졌다.

당시 아들은 놀랐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알고 차에서 내렸다. 먹거리를 만드는 도구가 온 도로에 흩어졌다. 차는 완전히 망가졌다. 하지만 운전석은 완벽히 보존됐다. 게다가 차도 뒤집어지지 않았다. 격리대에 차가 뒤집어지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었다.

이때 마을 사람이 와서 사고를 당하지 않은 아들을 보고 명이 크다고 했다. 이전에 이 입구에서 6 명이 사망했는데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라고 했다. 아들은 말했다. “이 목숨은

대법 사부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 봐요, 제가 무엇을 차고 있는지.” 말하며 몸의 호신부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말했다. “제가 명이 큰 게 아니라 전에 점치는 사람이 내가 명이 길지 않다고 말했어요. 명에 한 번의 재난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다행히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대법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어 경찰에게 말했다. “짧은 몇 개월 사이에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 아들의 생명을 구했고 손자에게 밝은 눈을 주셨어요. 우리 온 가족을 구했어요. 당신들 대법이 좋지 않아요? 왜 내가 수련하지 않겠어요?”

경찰은 모두 듣고 있었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여경은 눈물이 글썽했다. 마지막에 경찰은 말했다. “아주머니, 우리는 본래 당신을 설득하러 왔는데 지금 입도 벌리지 못하겠네요.” 나는 말했다.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당신들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요. 당신들에게 한마디 하겠어요. 누구도 모두 어른과 아이가 있어요. 크고 작은 일을 피할 수 없어요. 대법을 염하면 평안을 보장 받아요. 파룬따파는 좋아요. 당신들은 대법제자를 보호해야 하고 파룬궁을 배우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세 사람은 모두 웃으며 떠났다.



■ 지린성 지린시 골목 꽃밭에 있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표어 (2017년 5월)

[밍후이왕]중국민간은 바로 숨은 인재들이 있는 곳이며 어떠한 고사도 다 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엔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하여 보통사람과 별 다른 점이 없지만 그는 가능하게 모 한 방면에 특수한 능력이 존재한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아주 발광적일 때에도 오히려 어떤 민간고사는 이 기간에 세인들에게 간곡히 타일렀다. “절대 파룬궁을 박해하지 말라, 파룬궁은 정법이고 사람 구하러 왔다.”

점쟁이 타이름을 듣지 않은 결과

리쉐량(李学良)은 헤이룽장성 샹청(双城)시 시장이었다. 그는 줄곧 점치는 것을 믿었다. 명을 점칠 때 한 점쟁이는 그에게 “당신은 절대 파룬궁을 박해하지 마십시오, 이공은 대단합니다, 장래에 명예를 회복합니다”라고 알려주었다. 결과 리쉐량은 처음 몇 년에는 줄곧 중립을 지켰다.

하지만 2004 년 뤼간(罗干)이 리쉐량에게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박해하라고 명령했다. 리쉐량은 관직을 보전하기 위해 점쟁이의 훈계를 잊고 파룬궁 박해 비밀회의를 열고, 경찰을 부추겨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몇 일 사이에 여러 명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받아 사망했다.

리쉐량이 박해를 발동한 후 악보도 자연히 따라 왔다. 그의 아들 리수용(李树勇)은 차를 몰고 하얼빈으로부터 샹청에 돌아오다 길옆에 서있는 큰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 두피(头皮)가 뒷골에 밀려가 붙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고, 식물인과 다름없게 되었다. 이는 점쟁이 말이 맞았고 리쉐량은 집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한차례 도박을 걸었는데 그도 후회막급이다.

몽고족 리마 “절대 파룬궁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말라.”

몽고 아루커얼친(阿鲁科尔沁)목장에 한 덕이 많고 위망이 높은 노라마가 있다. 이 노라마는 “인과를 알고, 미래를 안다.” 그가 알려준 일은 모두 하나하나 적중했다. 때문에 사람들은 큰일이 있으면 모두 노



라마를 찾아가 어떻게 할지를 물었는데 그의 말대로 하면 결과가 좋은 것을 발견했다. 때문에 현지 몽고족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1999 년 7 월,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들은 것은 모두 파룬궁을 모독하고 먹칠한 방송이었다. 파룬궁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진짜 공산당이 말한 것과 같은가? 많은 사람들은 너무 현혹되어 노라마를 찾아 원인을 물었다. 노라마는 초조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절대 파룬궁이 나쁘다는 말을 하지 말라, 파룬궁은 정법이고 사람을 구하러 왔다.”

노라마는 “공산당은 파룬궁을 질투하고 파룬궁이 좋은 사람으로 많이 번하게 하니 진압한다.”고 했다. 그는 또 말했다, “공산당은 조만 간에 망하게 된다. 그는 ‘붉은 화근’이고 파룬궁은 꼭 바르게 돌려세운다.”

본지 백성들은 서로 전했고, 친척 간에 서로 절대 파룬궁이 나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또 근 2 년이 지났다. 노라마는 그가 곧 떠나게 된다고 하면서 어느 날에 가고 갈 때 두 마리 신의 새가 와서 데려가며 그새는 어느 방향에서 오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똑똑하게 말했다. 과연 노라마 그 자신이 말한 그날에 입적했는데 진짜로 두 마리 새가 왔고 노라마가 말한 방향에서 오고, 노라마가 말한 방향으로 갔다. ◇ (문/칭첸)



연 벤 박해소식

◆지린성 연벤주 엔지시 차오양찬 파룬궁수련생들이 소란 당하다

6 월에 들어서자 지린성 연벤주 엔지시 차오양찬 파룬궁수련생들은 장쩌민고소 때문에 계속 소란을 받았다. 엔지‘610’은 귀씨 경찰을 파견해 차오양찬진에와 장쩌민고소에 참가한 파룬궁수련생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파출소에 불러갔다. 계속 연공하겠는가? 편지를 또 쓰겠는

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는 또 연마하겠으면 집에서 연마하고 나가지 말라고 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상을 말하니 젊은 경찰은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린성 연벤주 엔지시 차오양찬 파룬궁수련생 쉬위편이 소란 당하다

지린성 연벤주 엔지시 차오양찬 파룬궁수련생 쉬위편(徐玉芬)

은 근일 또 엔지 국보대대의 소란을 받았다. 6 월 16 일, 국보인원은 집에 돌아 온지 몇 일 안 된 쉬위편이 거주하는 곳에 와서 쉬위편에게 또 연공하겠는가? 책이 또 있는가 없는가? 고 물었으며 또 집에 들어와 보려고 해서 쉬위편은 정념으로 거절했다.

◆ 지린성 연벤주 투먼(图们)시 파룬궁수련생 위젠민(于建民) 납치되다